



샤갈 〈나와 마을〉 캔버스에 유채, 192.1×151.4cm, 1911년, 뉴욕현대미술관 소장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의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들이 외
새로 돋는 정맥靜脈이
바르르 땀나。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들이 외

새로 돋는 정맥靜脈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 數千數萬의 날개를 날리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과일 나무를 덮는다。
삼월의 눈이 온다。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이
다시 올리브 빛이 되리라
밤의 아나타미아
그해의 채은 아랍과 라틴의
아름다운 외지관이다。

영똥한 상상, 붓으로 혹은 펜으로 나의 마을을 창조하다

모든 이들에게 '고향 마을'은 향수를 부르는 장소다. 이름만 들어도 묘한 느낌을 선사하는 곳. 그래서인지 많은 예술가들이 '고향' 혹은 고향처럼 여기는 '특정 장소'를 작품의 모태로 삼곤 했다. 토속미, 해학미가 느껴지는 김유정의 작품 속에도 그런 공간이 등장한다. 강원도 춘천이 그곳이다.

"나의 고향은 저 강원도 산골이다. 춘천읍에서 한 이십리 가량 산을 끼고 꼬불꼬불 돌아 들어 가면 내딛는 조그마한 산골이다. 앞 뒤 좌우에 굽적굽적한 산들이 뺨 둘러섰고 그 속에 문헌 아늑한 마을이다. 그 산에 문헌 모양이 마치 움푹한 떡시루 같다 하여 동명을 실레라 부른다."

〈오월의 산골작이〉중에서

실레마을은 단순히 김유정의 고향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은 그의 문학적 토양이 잉태하고 태어난 곳이며, 어려운 시절 그가 돌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귀소처이기도 했다.

고향에 대한 향수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도 있다. 구스반 산트의 〈아이다호〉에는 강박적으로 어머니가 존재했던 아이다호를 떠올리는 기면발작증 환자가 등장한다. 긴 수면에 빠질 때마다 떠올리는 공간, 모태에 있을 때의 편안함을 전해주는 묘한 공간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마을이다.

러시아 태생의 프랑스 표현주의 화가 마르크 샤갈(1887~1985)이 창조한 '마을'은 그 어떤 작품의 마을보다 독특하다. 대표작 〈눈 내리는 마을〉도 그렇지만 〈나와 마을〉에는 여러 개의 요소들이 더불어 존재하고 있다. 캔버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마주보고 있는 사람과 소의 얼굴이다. 마주보며 눈빛을 교환하는 이들은 서로를 닮았다. 누가 소인지, 누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말이다. 이들의 얼굴을 중심으로 그림 전체는 분할된다. 인간과 동물은 모두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으며 각각 푸른색, 붉은색의 공간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가축의 젖을 짜는 여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그 옆에서 쓰러진 듯 누워버린 여자의 모습,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집들이 신비스러우면서도 알 수

없는 환상적인 느낌으로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은 실재하지 않는 환상의 고향이다. 실재實在하지 않지만 붉은 빛과 푸른빛의 초자연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샤갈만의 마을인 것이다.

김춘수 시인은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에서 샤갈의 마을을 진한 생명력으로 표현한다. 이미지 중심의 감각적인 시를 창조했던 그가 샤갈의 그림에서 이 생명력을 발견한 것이다. 3월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내리는 곳, 인과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이한 자연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화가의 마을. 그곳에서는 새로 돋는 봄을 바라보는 사나이의 건강한 정맥이 보이고,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지피는' 아낙들의 움직임도 보인다. 그 세계를 배경으로 시인은 '눈'과 '새로 돋는 정맥', '올리브빛', '불' 등의 이질적인 시어들을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함께 배치했다. 결국, 샤갈이 자신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마을의 이미지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면 김춘수 시인은 그것에서 얻은 심상들을 언어로 드러낸다. 그들의 마을은 실체가 없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환상인 것이다. 지명도 없고, 위치도 확인되지 않으나 진실로 존재하고 있는 곳. 그들 마음 속의 마을은 그런 공간이다. 심적 환상을 시 혹은 그림으로 담는 작업. 샤갈과 김춘수가 공유하고 있는 예술적 세계는 '진실한 환상'을 창조해 내는 과정이다.

자전거를 타고 달 한가운대를 지나는 E.T와 꼬마친구들, 과자로 만든 집에 들어가는 동화 속 어린이들. 영똥한 상상은 동화나 영화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마음 속의 심상들을 붓으로 그리거나 펜으로 써서 현실로 들어앉히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김유정의 춘천이나 영화 속의 아이다호가 아닌 '샤갈의 마을'. 그곳은 화가 혹은 시인의 깊은 심상 속에 숨쉬는 환상의 마을이다. **한문**

김청연기자